

●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를 위한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 구축 방안

백 경 미(한양대)

목차

1. 서론
2. 어려운 한자어 진단 기준 분석
3.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 검토
4. 보도자료 평가 및 목록 추가
5. 수용도 조사
6. 결론

서론

0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공공언어 진단의 ‘어려운 한자어’ 항목에 대한 진단 기준과 보도자료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을 구축하고자 한다.

공공언어의 개념

-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남영신 2009)
-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언어(장후석 외 2010)
-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무자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문어 텍스트(민현식 외 2010)
- 개인이 사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일상 언어와 달리 공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 (강남욱, 박재현 2011)

💡 공공언어: 개인적인 언어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향해 사용되는 모든 언어

공공언어 진단의 목적

- 첫째, 국어책임관 평가의 내실화 및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 둘째, 공공기관 언어에 대한 정기적 평가 체계 구축
- 셋째, 기관별 국어사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 넷째, 국어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제고 및 개선 의지 확립
- 다섯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시행의 구체화
- 여섯째,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일곱째, 공공기관 언어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및 공공기관 언어의 모범성 제고

공공언어 진단 기준

영역	요소	항목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생산자 중심)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 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텍스트 중심)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수용자 중심)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공공언어의 갈래

생산 주체	대상	종류	
		문어	구어
국가 공공기관	국민	정부 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은행 · 보험 · 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	내부 문건, 보고서 등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연구의 배경

●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 시행(국어기본법 제14조제2항 신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이전조문](#) [전체법령](#) [다음조문](#)

-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시행일 2021.12.16]]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12.16]]

💡 평가 목록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정밀한 근거가 필요함.

어려운 한자어 진단 기준 분석

02

쉽고 친숙한 용어의 사용

- 쉽고 친숙한 용어란 가독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나친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 어렵고 현학적인 표현을 남발하여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를 판단한다.
- 어려운 용어에 대해 주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나 외국어 병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 항목을 어긴 경우
- 언중에게 쉽고 친숙한 인상을 주는 텍스트는 용어의 사용뿐 아니라 어조의 문제와 관련될 때가 있으므로 어조도 여기서 검토한다.
-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다가 수용자 편의를 위해 개정을 하거나 용어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현식 외(2010)의
진단 기준**

어려운 한자어 진단

-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 전문용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정해진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가?
- 일관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가?
- 전문 용어에 대해 적절한 해설을 하고 있는가?
-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병기를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 한자어 줄임말의 경우, 본말을 병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민현식 외(2011)의 진단 기준

민현식 외(2011)의 진단 결과

- | | |
|-------------------|------------------------------|
| ▪ 前 → 전(前) | ▪ 제고해 → 높여 |
| ▪ 예방 → 예방(禮訪) | ▪ 전작권 →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
| ▪ 저상버스 → 저상(低床)버스 | ▪ 역모기지제도 →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 ▪ 정정불안 → 정정(政情)불안 | ▪ 플랫폼 → 용어에 대한 해설 필요 |

어려운 한자어 진단

- **한자와 영어(원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고 적절하게 병기하고 있는가?**
 - 한자나 영어(원어)는 가능한 한 한글로 풀어 쓰되 의미 변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병기를 원칙으로 하여 노출함.
(예) 中企 → 중소기업, road show → 길거리 공연
 - 상호나 고유 명사, 전문 용어, 줄임말은 본말인 한자와 영어(원어)를 노출하여 이해를 돕되 설명을 덧붙임.
(예) FTA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구본관 외(2012)의
진단 기준 (1)

어려운 한자어 진단

■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1차적 진단 대상으로 삼되, 순화 정도가 ‘○’: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의 처리: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러 맥락에서 공통적인 순화어를 가지는 경우 (예컨대, ‘수취’는 ‘받음’으로 순화)는 순화어를 사용하도록 진단하나 맥락에 따라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의미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 순화 정도가 ‘×’의 처리: 순화한 용어만 쓸 것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진단 대상으로 삼음. 단, 순화 대상어의 계열성을 고려함. 예컨대 ‘금번’은 ‘x’등급, ‘금년’은 ‘o’등급이지만 두 어휘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모두 순화어를 사용하도록 진단함.

구본관 외(2012)의
진단 기준 (2)

어려운 한자어 진단

- 정해진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가?
 - 순화 등급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서 기준 없이 섞어 쓰는 경우는 진단 대상이 됨.
 - (예)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서 ‘회의에 상정하다/부치다’가 혼용되는 경우
→ 순화어인 ‘부치다’로 통일하여 사용함.
- 어려운 전문 용어에 대해 적절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가?
 - (예) 상계 관세, 신주인수선택권, ESCO/WASCO, 경관보전직불제 등

구본관 외(2012)의
진단 기준 (3)

구본관 외(2012)의
진단 결과

- | | | |
|-----------------------|------------------|----------------|
| ▪ 場 → 장(場) | ▪ 금번 → 이번 | ▪ 전년 → 지난해 |
| ▪ 감척 → 감척(減隻) | ▪ 내원 → 방문 경험이 있는 | ▪ 제고 → 향상 / 높임 |
| ▪ 역지사지 → 역지사지(易地思之) | ▪ 도래 → 다가옴 | ▪ 회부하다 → 부치다 |
| ▪ 자살고위험군 → 자살 고(高)위험군 | ▪ 수취하고 → 받고 | |

어려운 한자어 진단

- 한자나 영어가 한글에 대한 병기가 아닌 원어로 쓰여 있는 경우 진단한다.

단, 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의미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진단하지 않는다.

(예) 서울市 → 서울시

長官 → 장관

FM → 주파수 변조 (진단하지 않음)

- 원어가 약자인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를 풀어 써준다.

(예) FTA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최홍열 외(2013)의
진단 기준**

**최홍열 외(2013)의
진단 결과**

- ‘47個, 既’처럼 한자어로 표기한 경우도 쉽고 친숙한 용어 사용 부문에서 다수 지적되었다.
- ‘금번’이나 ‘금년’의 경우 일본식 한자 표기라 ‘이번’이나 ‘올해’로 순화하여 써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 진단

- 어려운 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라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였는가?(금년, 금번, 명일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고압적인 표현, 권위적인 표현, 차별적인 표현을 삼갔는가?
 - 어려운 용어(한자, 로마자, 한글 약어, 로마자 약어, 전문어 등)를 쓴 경우, 해당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최홍열 외(2014)의 진단 기준

최홍열 외(2014)의 진단 결과

-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한 점.
- 막연하고 어려운 단어나 표현들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여 문제점을 지적 받기도 했다.
-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 사용된 점
- 고어가 별도의 설명 없이 제시된 점
-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가 자주 노출되었으며,
- 어려운 용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점

어려운 한자어 진단

-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 외국어, 전문용어, **한자어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포럼, 리플렛, 캐치프레이즈, MOU, 제고, 자주식 굴삭기, 금년, 금번, 명일 등
 - **어려운 용어(한자, 로마자, 한글 약어, 로마자 약어, 전문어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절한 해설을 하고 있는가?**
 -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게 병기를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구본관 외(2016)의
진단 기준**

**구본관 외(2016)의
진단 결과**

- 공제제도 및 오픈소스 GIS 솔루션 등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소두증, NH 등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진단

-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 2.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가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보시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슬리는 외래어, 한자어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 3. 총평

장점

단점

지침 7쪽 참조 ←

김미선 외(2018)의
진단 기준

김미선 외(2018)의
진단 결과

-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 어려운 단어들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
-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 한자어 표기가 너무 많아서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 '보훈급여금' 등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정책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어려운 한자어 진단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항목 분석(김미선 외 2018)

순서	출현 빈도(건)	단어 개수	한자어
1	9	1	*(TF, 로마자)
2	6	2	제고
3	5	1	*(컨설팅, 외국어)
4	4	5	애로사항, 하도급
5	3	11	개소, 물납, 유휴, 즉심
6	2	40	계도, 계호업무지침, 교부, 모성보호, 반대급부, 부정담업자, 성비위, 수혜, 시달, 시보, 애로, 양묘장, 이행, 임계, 재가복지, 저감, 적시성, 준공, 추심, 피복
7	1	469	가명조서, 가사사건, 가산금, 가설교량, 간이과세자, 간이하게, 같음, 감리, 감치요건, 甲질, 개문출발방지장치, 개발행위허가, 개보수단,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 개진되다, 개호비 외

어려운 한자어 진단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가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평가 항목	평가 방식
1.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미흡)~5점(우수) 중 선택
2. 보도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되었다.	
3.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4.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5.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1점(미흡)~5점(우수) 중 선택 + 해당 표현 입력
6.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가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해당 표현 입력
총평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각각 입력

이상신 외(2019)의
진단 기준

이상신 외(2019)의
진단 기준

- 역전복동(7)
- 파공(6)
- 사내하도급(5)
- 환류(4)
- 적치(4)
- 역점시책(4)
- 혼획(4)
- 피치료감호자(4)
- 상선(4)
- 수발아(4)
- 일몰(2)
- 저감(2)

어려운 한자어 진단

- 공공언어 진단의 큰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음.
- ‘소통성 - 용이성’의 항목 중 ‘쉽고 친숙한 어조’에 한자어와 외국어가 함께 평가됨.
-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시민 평가단(설문조사), 가중치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음.
- 진단을 위한 ‘한자어 목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목록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함.

어려운 한자어 진단 목록

- 2018년 국립국어원 선정 필수 개선 행정 용어
- 2018년 보도자료에서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이 지정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 출처: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
- 2018년 국립국어원 선정 필수 개선 행정 용어
- 국립국어원 누리집 ‘다듬은 말 목록’ 수록 단어
- 국립국어원 선정 알기 쉬운 행정 용어
- 2019년 보도자료에서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이 지정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 출처: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
- 2019년 개선 대상 공공용어 선정 목록
(※ 출처: 2019년 어려운 공공용어 진단 기준 마련 보고서)
- 국립국어원 한자어 진단 목록(2020~2021)

총 813개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 검토

03

1. ‘다듬은 말’이 없는 경우

-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이 없는 한자어를 평가 대상으로 삼기 어려움.
- 평가 대상 기관에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개선하려면 ‘어려운 한자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표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검토 표현의 예

감면(減免), 경감(輕減), 과태료(過怠料), 낙과(落果), 도제식(徒弟式), 무상(無償), 발족(發足), 병행(竝行), 부과(賦課), 비위(非違), 빈번(頻繁), 상설(常設), 선도적(先導的), 숙의(熟議) 등

2. '다듬은 말'인 경우

- 이미 순화어로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어려운 한자어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됨.

◆ 검토 표현의 예

- 품셈 - 일위 대가(순화 대상어) / 품셈 단가(순화어)
- 자의적 - 게리맨더링(순화 대상어) / 자의적 선거구(순화어)
- 숙성 - 드라이 에이징(순화 대상어) / 건식 숙성(순화어)
- 식별 -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순화 대상어) / 가입자 식별 칩(순화어)
- 협업 - 코워킹(순화 대상어) / 협업(순화어)
- 압류 - 가압류(순화 대상어) / 임시 압류(순화어)

3. 한자어의 실제 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실제 쓰이는 한자어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평가 목록에서 제외함.
- 목록 중에서 일부 용어는 그 용어의 의미나 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

◆ 검토 표현의 예

유송대, 다심도, 세천, 변서

4. 전문용어인 경우

- 법률, 의학, 건축, 종교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대체할 표현이 마땅히 없는 경우 평가 목록에서 제외함.

◆ 검토 표현의 예

<대체어가 없는 경우>

- 영지식증명
- 다포계
- 제헌율
- 주불전
- 피진정인
- 낙차공
- 색전술
- 기소유예
- 동종전과
- 주취소란
- 만기일시상환

<대체어가 있는 경우: 논의 필요>

- 송치
- 과오납금
- 과징금

5. 한자어 난이도

- 초등학생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를 분석한 민현식 외(2003)에 제시된 한자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법
-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를 중심으로 진단의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배영환 2021:121)
- 한자 난도가 낮거나 교육용 한자 1,800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지 않아도 어려운 공공용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한자 난도가 높고 교육용 한자 1,800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도 어려운 공공용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구본관 외 2019:40)
- 공공용어에 포함된 한자어 문제는 친숙도 정도 등 인식 주체 요인에 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영향 요인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구본관 외 2019:46)

5. 한자어 난이도

- 구본관 외(2019)일반 국민(1,000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해도 3점 미만인 한자어

확도, 나지, 금후, 개서, 정주 여건, 성료, 궐위, 징구, 시계열, 개보, 예가, 계상, 차폐, 원안위, 예타, 경정, 전언 통신문, 산은, 정례, 시방서, 예규, 이첩, 관보, 일몰제, 기조, 방호, 개축, 법제, 비준, 노무비

- 다듬은 말에 있으나 다른 말과 결합하여 널리 쓰이는 표현은 평가 목록에서 제외함.

◆ 검토 표현의 예

- 인지
- 체감
- 청취

6. 기타

- 다듬은 말 목록에는 없으나,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자어의 경우

◆ 검토 표현의 예

양액(양쪽 겨드랑이). 업권(사업의 범위, 사업 권리), 유가금속(값이 나가는 유색 금속), 용이하다(쉽다)

보도자료 평가 및 목록 추가

04

1. 보도자료 평가

- 대상: 5월 생산 보도자료
- 분량: 5건씩 총 80건
- 평가 후보 목록: 636개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1	경기도 _가평군	9	경기도 _연천군
2	경기도 _광주시	10	경기도 _용인시
3	경기도 _군포시	11	경기도 _의왕시
4	경기도 _김포시	12	경기도 _이천시
5	경기도 _안성시	13	경기도 _파주시
6	경기도 _양주시	14	경기도 _포천시
7	경기도 _양평군	15	경기도 _하남시
8	경기도 _여주시	16	경기도 _화성시

2. 보도자료 평가 결과(일부)

기관명	보도자료 제목	생산일자 (0000-00-00)	어절 수	지적 용어
경기도_가평군	2022년사회적경제창업성공패키지사업예비창업팀모집공고	2022-05-27	111	도모
경기도_가평군	「2022년사회적가치생산품홍보및판로지원사업」지원기업모집공고	2022-05-27	128	판로
경기도_가평군	「2022협동조합지원」'특화분야협동조합육성'사업참여협동조합모집안내	2022-05-18	99	일환
경기도_가평군	가평아람마을치유농업학교교육생모집안내	2022-05-17	97	관여
경기도_가평군	가평아람마을치유농업학교교육생모집안내	2022-05-17	97	용이
경기도_가평군	가평에서살아보기지원사업참가자모집	2022-05-16	67	관여
경기도_광주시	광주시,'광주역사둘레길'성공적추진을위한현장답사추진	2022-05-25	303	구상
경기도_광주시	광주시,'광주역사둘레길'성공적추진을위한현장답사추진	2022-05-25	303	역점
경기도_광주시	광주시,'광주역사둘레길'성공적추진을위한현장답사추진	2022-05-25	303	폐사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지역사회와함께하는방역소독의날캠페인'	2022-05-27	176	상기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지역사회와함께하는방역소독의날캠페인'	2022-05-27	176	위탁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교통정보시스템(ITS)고도화사업추진	2022-05-26	199	고도화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교통정보시스템(ITS)고도화사업추진	2022-05-26	199	골자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교통정보시스템(ITS)고도화사업추진	2022-05-26	199	공모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교통정보시스템(ITS)고도화사업추진	2022-05-26	199	구축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교통정보시스템(ITS)고도화사업추진	2022-05-26	199	만성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교통정보시스템(ITS)고도화사업추진	2022-05-26	199	착수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월10만원->13만원으로인상	2022-05-25	172	예우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끼많은청년아티스트발굴.지원	2022-05-23	255	고시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끼많은청년아티스트발굴.지원	2022-05-23	255	당해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끼많은청년아티스트발굴.지원	2022-05-23	255	판로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수입수산물원산지표시특별점검실시	2022-05-23	223	부과
경기도_군포시	군포시,수입수산물원산지표시특별점검실시	2022-05-23	223	점과

3. 추가된 어려운 한자어 목록

구분	한자어	다듬은 말
1	가설건축물	임시 건축물
2	가용자원	쓸 수 있는 자원
3	공가	공식 휴가
4	낙상	떨어져 다침
5	배석	자리를 같이 하다
6	와해	무너짐
7	집중호우	작달비, 장대비
8	학령	학교 갈 나이

수용도 조사

05

1. 조사 대상 및 방법

- 추가된 목록(4장 결과, 8개)
- 대학생 45명(남 27, 여 18), 평균 나이 22.7세
- 8개의 한자어를 대상으로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사용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질문함.
- 5점 척도로 답하는 방식
 - 5점: 전혀 없음, 전혀 이해 못함.
 - 1점: 아주 많음, 매우 잘 이해함.
- 인터넷을 통한 설문 조사로 진행함.
- 기간: 2022년 9월 13일~15일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survey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질문' (Question), '응답' (Response), and '설정' (Settings). The '질문' tab is active, showing a list of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1. '배석' 용어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Have you ever seen or heard the term 'Bae-seok'? *). It has five radio button options: '전혀 없음.' (None at all), '없음.' (None), '보통' (Average), '많음.' (Many), and '아주 많음.' (Very many). The second question is '1-1. '배석'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 (How much do you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rm 'Bae-seok'? *). It has five radio button options: '전혀 이해 못함.' (Don't understand at all), '이해 못함.' (Don't understand), '보통' (Average), '잘 이해함.' (Understand well), and '매우 잘 이해함.' (Understand very well). The third question is '1-2. '배석'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Have you ever used the term 'Bae-seok'? *). It has five radio button options: '전혀 없음.' (None at all), '없음.' (None), '보통' (Average), and '많음.' (Many). On the right side of the form, there is a vertical toolbar with icons for adding, deleting, and other editing functions.

2. 조사 결과(수용도 평균)

구분	한자어	용어를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 해합니까?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어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설건축물	2.82	2.66	3.68	2.75
2	가용자원	2.11	2.06	2.93	2.31
3	공가	2.84	2.91	3.28	3.02
4	낙상	2.24	2.13	3.24	2.71
5	배석	3.73	3.64	4.26	2.24
6	와해	1.95	1.77	2.73	2.31
7	집중호우	1.22	1.28	2.04	1.57
8	학령	3.22	3.13	3.8	3.33

결론

06

참고 문헌 – 연구보고서

구본관 외(2012),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I, 국립국어원.

_____ (2012),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II, 국립국어원.

_____ (2016), 2016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국립국어원.

_____ (2019), 어려운 공공용어 진단 기준 마련, 국립국어원.

김미선 외(2017),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국립국어원.

_____ (2018),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국립국어원.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_____ (2011), 2011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I, 국립국어원.

_____ (2011), 2011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II, 국립국어원.

이상신 외(2019),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국립국어원.

장후석 외(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최홍열 외(2013),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국립국어원.

_____ (2014), 2014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정밀화, 국립국어원.

_____ (2015),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국립국어원.

허재영 외(2014),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연구, 국립국어원.

참고 문헌

- 강남옥. 박재현(2011), 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3~156.
- 국립국어원(2019),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 김미진. 배영환(2016), 제주지역 공공언어 사용 실태 연구, 돈암어문학 29, 돈암어문학회, 291~320.
- 남영신(2009), 공공기관 서식, 문서의 국어사용 실태에 대한 토론문, 한국어교육학회학술발표집, 한국어교육학회, 321~322.
- 박재현 외(2011), 공공언어에 대한 요건별. 장르별 만족도,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177-207.
- 배영환(2021), 공공언어의 어려운 한자어 진단 기준 시론, 공공언어학 6, 한국공공언어학회, 107-139.
- 백경미(2019), 공공언어 용이성 진단 기준의 개선 방안, 공공언어학 2, 한국공공언어학회, 77-120.
- 백경미. 육영주. 김태경(2022), 정부 공공기관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언어문화 77, 한국어언어문화학회,
- 서은아 외(2014), 충청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연구, 한민족어문학 67, 한민족어문학회, 165~185.
- 서혁 외(2014), 공공 문식성 제고를 위한 공문서 텍스트의 평가와 분석, 새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학회, 119~152.
- 신명선 외(2016),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 국어교육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37~195.
- 이지용. 김미선(2018), 공공언어 정확성 진단 기준의 개선 방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105~138.
- 장소원(2011), 공공언어 개선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분야,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53~68
- 정윤희 외(2018), 공공언어 소통성 평가 개선을 위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어문논집 75, 민족어문학회, 103~125.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감사합니다